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KEITH  
MOORE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BY KEITH MOORE**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 2019 KEITH MOORE

Faith Life 출판사

ISBN: 978-1-940403-02-1

[BK805F](#)

MOORE 생명 사역

6009 Business Boulevard

Sarasota, Florida 34240

941-388-6961

[www.moorelife.org](http://www.moorelife.org)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책의 모든 성경 인용문은 영어 공용 성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책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연장되고, 구원받고, 변화될 것이며, 사람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힘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음이 발밑에 두어야 할 마지막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5절과 26절) **죽음은 친구가 아닌 적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가 지불하는 값은 죽음이다." (로마 6:23) 아담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지나간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답이시며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본 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는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55 절은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1절부터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말씀해 왔으며, 55절을 보면 바울이 흥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조롱할 때 당신 안에 강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죽음이여, 당신이 묻은 곳은 어딘가요? 죽음이여 저는 당신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 친구여, 우리가 무덤가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또는 죽음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56-57 절은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것들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 왔으며, 저는 이 구절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장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14에서 이 진리를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였다." 예수님이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15 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을 평생 속박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은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성가시게 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묘지 주변에 있거나 장례식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떨며 "우와! 다른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할 것 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 고립공포증,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공포증 등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름을 가진 공포증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토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비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단지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넘어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면이 변화합니다. 잠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고 길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집 안에 갇혀 있거나 식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공기 속에는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기농이나 천연 식품을 먹어도 그 안에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감염을 막는 것은 오직 면역 체계와 하나님의 힘뿐이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휴거를 더 이상 연기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와 금붕어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첫째 15: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는 승리가 없다. 예수님은 죽음과 장사,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내가 사망과 무덤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18)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적어도 7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착(태어나는 사람)과 출발(죽는 사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은 떠나고, 이곳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의 매초마다 지구 어딘가에서 두 명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더 죽고... 두 명이 더 죽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약 155,000 명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사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라고 말할 것 입니다.

그것은 온 땅의 길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어서는 안되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장수를 누리면 장례식에 많이 갈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것입니다. 당신이 오래 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력감을 느낀다면 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32)

조금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알 때,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13세 어린이든 몬태나의 80세 노인이든, 어린 시절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죽으면 그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와우,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는 줄 몰랐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2-4)

따라서 잠시 동안은 몸에서 빠져 있다가 **방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끝도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나팔이 불 것이며 당신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죽음은 그저 암흑과 허무일 뿐이며, 당신은 사라지고, 그게 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떠나 고통의 장소로 내려간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수술을 받고 죽었다고 말한 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는 죽었고 그녀는 수술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의 몸 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외과의사들에게 그들이 한 행동과 말을 설명했고, 외과의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그들은 수술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장비의 일부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몸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색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색채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벗겨지고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적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 즉 순수한 사랑이라는 밝고 환하고 놀라운 빛을 봤다고 말하며, 그 순간 *저기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신은 빛이십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지금 천국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눈물의 장소를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벗어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삶, 고통 및 손실에 수많은 공허함과 공허함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면, 그냥 일찍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냥 그만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냥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3 가지 큰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유 1

***마귀가 당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큰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슬프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우울증, 절망감, 고통과 반복해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내가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고 믿게됩니다. 또는 사람들은 "나는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아프고,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믿게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탈출의 방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거나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끝일까요? 완전한 어둠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살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방금 한 일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 여성은 낙담하여 목을 매고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체와 주변의 모든 쓰레기에서 벗어나면 다릅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들어와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들어 올리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소생시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연히 그들이 그녀를 구한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렇게 여러 번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상실감을 경험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꿈쩍했죠. 사랑에 빠졌거나 적어도 사랑에 빠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애정이나 감정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판단하여 지난 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처이며, 그 약한 순간에 마귀가 와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무도 당신처럼 아파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유혹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13)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매우 교활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그는 여러분을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공감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삶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라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약점과 절망의 순간에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만 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10, 11, 12, 13살을 지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왔다면 이제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너무 아프더라도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제가 말했듯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낮잠을 자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만 하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연장할 수 있고,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자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비록 몸은 좋지 않았지만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어야 할까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꺼번에 격렬한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고 모두의 쇠사슬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매우 특정한 유형의 지진입니다. 27절은 "간수가 깨어나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억측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을지 궁금합니다.

욥이 한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욥기 3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를 되뇌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왜? 왜?"를 되뇌었습니다.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이며, 잘못되고 어두운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이며 그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죽음과 어둠,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도달하면 적들은 "그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전만큼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울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간수는 자살 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권총을 들고 머리에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총이 없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나 몸에 칼을 대고 자신을 베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무력하고 희망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바울을 통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그것을 말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자해, 학대, 신체의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자신을 다치게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칼을 몸 안으로 밀어 넣으려던 찰나에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늦을 뻔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모두가 더 나아질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큰 실수입니다. 당신은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당신은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차를 한 번만 적당히 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썹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인생에서 잘한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반복합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다음에 마귀가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라고 말할 때, "그럼 예수님은 왜 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셨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25 센트짜리 물건에 10 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해 지불 된 가장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까?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울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옳은 일은 하나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아시나요?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돕고, 당신을 꺼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도록 시간을 드리십시오.

간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남자는 가슴이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르려고 했으며, *희망이 없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할 텐데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모두 사라졌어. 어차피 난 죽었어. 난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넌 어차피 죽은 사람이야, 모두에게 죽었어." 아닙니다. 당신이 그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것을 믿지 말고, 듣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경비병은 "당신은?" 하고 대답하고 칼을 내려놓았다. "여기 있는건가요?"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29-30 절에는 "교도관이 등불을 달라고 부르며 급히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스 앞에 떨어 옆드리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여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가 그 검을 가슴에 꽂는 데 2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31절은 계속해서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가 칼을 던졌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16:31-34)

두어 시간 전, 그는 은유적으로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웃으며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목숨을 끊었다면, 포로들이 모두 죽었고 희망이 없으며 어차피 처형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었다면 그가 무엇을 놓쳤을지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너무 교묘하고 기만적입니다. 그는 그런 거짓말쟁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번역판에서 시편 91:14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구출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너에게 대답 할 것이다. 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공경할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너를 흡족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보여 주겠다." (14-1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구해 주겠다. 너를 도와 주겠다. 내가 지켜 주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보여 주겠다. 나에게 기회를 다오. 나에게 시간을 다오.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지금 그만두고 자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결코 그것이 보이고 느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정말 시련과 시험을 겪었던 나쁜 시절이 있었을까요? 예, 바울에게도 삶을 경멸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냈고,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바울은 "내 자유로운 삶은 이제 끝났고, 최고의 시절도 지나갔으며, 이제 기대해야 할 것은 매질과 감옥 뿐이나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사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저를 움직이지 아니하옵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낙담, 절망, 절망, 무력감으로 몰아넣고 당신이 완전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죽음 자체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 생의 며칠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망의 혈떡임이 아닌 "내가 기쁨으로 내 길을 마치도록", 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완수하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 이유 2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르고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 중간에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끝내야합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 저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 있다면, 당신의 길을 찾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마칠 때까지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겠지만, 성경은 인내와 인내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찍 떠나고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자살을 하고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만나서 "야, 일찍 떠나고 일을 끝내지 않은 건 무슨 생각이었어?" 우리가 우리의 일과 너의 일을 해야했어." 라고 말해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고 그것을 지나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음, 자살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살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왜 당신은 그 후에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당신이 자살했을 때 길을 잃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 이미 죽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인류의 추론과 생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기 전에 구원 받았다면, 당신은 그 후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왜 자신을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이 자살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에 가거나 길을 잃었다고 가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정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한 이 여성처럼,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즉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고 미안해 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얻었고 돌아와서 올바르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으리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그런가요? 그는 "우리는 삶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계속 살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계속 가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한계를 넘어서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강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삶을 경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까지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9 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다가와 "당신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 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극복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 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올려다 보며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알다시피,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요한 1서 4:4)"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에 대해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내가 나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나니 이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둘째 12:9-10)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준비할 때 "난 못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계속할 수 없어."라고 되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13)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10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시편 91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까? 그는 그를 구출하고, 돕고, 존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 주셨고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희망이 없다. 우리는 무력한 희생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도울 것입니다.

절망하여 방아쇠를 당기거나 약병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상황을 해결할 기회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제때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극복하면 주변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포기하고 그만두면 주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포기하고 그만두고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세 사람이 자살하도록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도 성공할 수 없으니 나도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영향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않는 남성 또는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셨고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물어볼 때 일어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저를 꺼내주셨어요. 지금 저는 이 일을 즐기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빈손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결실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보상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만의 경주를 할 것이고, 제 길을 끝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시련이 있는 지 몇 년 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난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그 밑에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야 한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탑승 중이고, 제 비행은 떠날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4:5-8)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 11:6)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또는 "나는 패배했다, 너무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인까요? 몸에서 나오 자마자 누구를 보게 될지 맞춰보십시오. 시도하지 않고 그만둔 것에 대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인생의 도중에 단절되어 남은 인생을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50년 또는 75년이 더 남았다면 시속 160킬로미터로 달릴 때 길가에 있는 가로등 기둥처럼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어차피 떠날 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인생을 짧게 사려고 하나요?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들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전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시고 보여 주실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성공하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도전이 있지만 극복하기도 합니다. 시련이 있고 아프지만 그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고 솔직히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 손을 뺀 리본에 닿으려 합니다. 이제 레이스를 마칩니다. '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을 인지할 겁니다.

당신이 아는 다음 일은,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나왔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 25:21)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고통과 고뇌는 3 초 만에 일어난 일과 같을 것이며,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상의 열매를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직접 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길을 마쳤다.

나는 신앙을 지켰고, 갈 준비가 되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보고 나이도 먹었으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인들이 "늙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 당신은 여기서 나가면 됩니다.

왜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만 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끝내야 할 길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야합니다. 끝까지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자살해서는 안되나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나요?

### 이유 3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읽기 쉬운 버전의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목을 맬 건가요? 산탄 총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을 건가요? 약을 잔뜩 먹을 건가요? 손목을 자를 건가요? 당신이 파괴 할 수있는 것은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글쎄, 그것은 내 몸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몸일까요? 사실, 그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당신이 그것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몸에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의 머리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손목 등을 자르는 행위예요?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안된다. 너는 감히 내 몸에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나는 그를 구매했다. 나는 그를 지불했다. 내가 고쳐 주겠다. 내가 도와 주겠다. 나는 그것을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변형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구절에는 자신을 베거나, 훼손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다량의 약물이나 기타 자신을 손상시키고 해치는 것을 알고있는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몸을 돌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이제 이 몸은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몸은 내가 필요로 하는 한 나를 잘 섬길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는 일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곳을 구원받지 못한 채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 안에서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길을 마쳤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 구원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루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도우실 때,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아무도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그에게 "주님, 죄송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굴복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보다  
위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힘이 없어지고 부족할 때,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실 때,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제 길을 끝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살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낄 때 성경에 당신을 위한 말씀이 있나요?

주님은 “네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구출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실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Keith Moore 는 Branson, Missouri 및 Sarasota, Florida 의 Moore Life Ministries 와 Faith Life Church 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이 책은 Moore Life Ministries/Faith Life Church 의 파트너에 의해 무료로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Moore Life Ministries*  
6009 Business Blvd  
Sarasota, FL 34240  
(941) 388-6961  
[www.moorelife.org](http://www.moorelife.org)

NO CHARGE - SEED



BK805F

ISBN: 978-1-940403-02-1